전자정보자원의 검색시스템에 관한 연구

- 부산·울산·경남지역 대학도서관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Retrieval Systems for Digital Information Resources : Focused on the University Libraries in Busan, Ulsan, Gyeongnam Districts

도 태 현(Tae-Hyeon Doh)*

〈 목 차 〉

Ⅰ. 서 론
Ⅱ. 조사대상 도서관 전자정보자원 검색시스템의 개황
Ⅲ. 도서관의 전자정보자원 검색시스템
1. 전체자료 검색메뉴에서 전자정보자원 검색
2. 전자정보자원 검색메뉴에서 자료 유형별 검색
Ⅳ. 제공처의 전자정보자원 검색시스템
1. 제공처별 검색시스템의 접근점
2. 제공처별 검색시스템의 검색조건
Ⅴ. 요약 및 제언
Ⅵ. 결 론

초 록

이 연구에서는 부산·울산·경남지역의 대학도서관 전자정보자원 검색시스템과 전자정보자원 제공처의 검색시스템을 분석하였다. 도서관 검색시스템의 접근점과 검색조건들(검색어의 조합방식, 검색어 일치방식, 검색의 상세수준)은 서로 다르고 통일성이 없었다. 제공처 검색시스템의 접근점은 그 종류가 불필요할 정도로 많고 서로 달랐으나 검색조건들은 비교적 정밀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전자정보자원 검색시스템의 개선을 위한 제언을 하였다.

키워드: 전자정보, 정보자원, 검색시스템

ABSTRACT

This study surveyed the retrieval systems for digital information resources of the university libraries in Busan, Ulsan, Gyeongnam districts and the vendors. Kinds of access points and retrieval conditions(Boolean logic, methods of index term identification, and particularities of the retrieval) of the libraries' systems are various and different to each other. Access points of the vendors' systems are unessentially various and different to each other, but the retrieval conditions are rather elaborated. Upon the result the suggestions for the standardization of digital information retrieval system are offered.

Keywords: Electronic Information, Information Resource, Retrieval System

* 동의대학교 인문대학 문헌정보학과 교수(thdoh@deu.ac.kr)
• 접수일: 2008년 11월 19일 • 최초심사일: 2008년 11월 25일 • 최종심사일: 2008년 12월 22일

www.kci.go.kr

Ⅰ. 서 론

도서관의 입장에서 정보기술과 전자정보자원을 바라보는 시각은 양극화 현상을 보였다. 그 하나는 첨단 정보기술들이 정보자원을 수집, 축적, 전달하는 도서관 기능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기여함으로써 도서관의 위상이 확고하여지고 새로운 활로를 찾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이들 기술이나 디지털 매체가 갖는 특성이 오히려 도서관으로 하여금 정보의 유통 과정에서 단순히 '게이트웨이'로 전락하게 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이다. 말하자면 도서관이 한 세대의 지적 문화적 유산을 수집, 저장, 배포하고 다음 세대로 계승하는 전통적 기능을 상실하고 공동화(空洞化) 될 것에 대한 염려이다.

도서관계는 이러한 정보기술과 전자정보자원에 대한 기대와 우려를 일찍이 감지한 바 있고 이에 따라 정보자원의 '소장과 접근'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다수의 담론들을 생산하였다. 이와 같은 도서관계의 기대나 우려와는 무관하게 유통의 신속성, 정보전달의 사실성, 거기에 경제성 논리까지 가세하여 매체의 디지털화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용자의 요구에 민감하게 부응할 수밖에 없는 도서관에서도 이러한 정보의 유통시장 변화를 백안시할 수는 없게 되었다.

도서관 자료에서 전자정보자원이 차지하는 범위의 확대도 가시화되고 있다. 국내 도서관의 경우 정확한 통계가 없으나 개별 도서관들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면 전자정보자원의 구입량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어렵잖게 확인 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는 *Library Journal*의 2001년 통계에 따르면 대학도서관들(Academic Libraries)의 전체 자료구입비에서 전자잡지 구입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3년 전 11%에서 당해 연도 16%로 증가하였으며 이후 3년 동안 22%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1] ARL(Association of Research Libraries)의 통계에 따르면 미국 대학도서관의 경우 1992년부터 2002년까지 전체 도서관자료 구입비 대비 전자정보자원(컴퓨터파일과 전자연속간행물)의 비율이 평균 3.60, 4.75, 6.39, 6.83, 7.76, 8.85, 10.56, 12.88, 16.25, 19.20%로 꾸준히 증가하였으며,[2] 그 후 2006-2007년 통계에 따르면 조사에 참가한 도서관들의 전체 도서관자료구입비 대비 전자자료구입비의 비율이 평균 46.55%에 이른다. 연속간행물의 경우는 그 전환 속도가 더욱 빨라 전체 연속간행물구입비 대비 전자연속간행물 구입비의 비율이 평균 76.54%에 이르는 것으로 계산되었다.[3]

---

1) LJ Survey: Academic Libraries 2001. Andrew Richard Albanese, "Moving from Books to Bytes : It's no secret that academic libraries are buying more digital resources than ever. So what's behind the shift?" *Library Journal*, 14(2001. 9. 1.) 〈e-journal〉에서 재인용.

2) *ARL Statistics 2005-2006 : A Compilation of Statistics from the One Hundred and Twenty-three Members of the Association of Research Libraries*, comp. and ed. by Martha Kyrillidou and Mark Young, (Association of Research Libraries : Washington, D.C., 2008), 〈http://www.arl.org/stats/annualsurveys/arlstats/arlstats06. shtml〉[cited 2008. 6. 27].

3) Association of Research Libraries Home page, 〈http://www.arl.org/bm~doc/07tables.xls〉 [cited 2008. 12. 10].

www.kci.go.kr

인쇄매체와 전자정보자원의 적정 생산 비율은 쉽게 가늠할 수 없지만 당분간은 전자정보자원의 생산 확대가 지속될 것이며, 이러한 전자정보자원에 대한 도서관의 수요가 증가하는 것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도서관이 이러한 정보자원의 수집과 관리에 주도적,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도서관의 역할은 자료의 수집과 보존, 제공에 걸쳐 광범하지만 그중에서도 제공을 위한 자료의 효율적 탐색은 이러한 역할의 원만한 수행을 위한 우선적 전제가 된다. 전자정보자원에서도 예외는 아니며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기 위해서 그 검색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

이미 대부분 도서관의 목록이나 정보검색시스템에는 전자정보자원 검색시스템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 도서관의 검색시스템이 표준적 준거가 미비하여 도서관마다 제 각각일 뿐만 아니라 특히 전자정보자원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거나 충분히 세밀하지도 못하다. 본 연구에서는 개별 도서관의 전자정보자원 검색시스템을 분석하여 보고 그 결과를 토대로 문제점과 추후 전자정보자원 검색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준거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필자가 종전에 수행한 바 있는 연구[4]의 계속 연구이다. 지난 연구에서 필자는 개별 도서관의 자동화목록 검색시스템 현황을 분석하였고 이를 표준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때 여타 도서관자료와는 다른 특성을 보이고 있는 전자정보자원의 검색시스템에 대하여는 다시 한 번 독립적으로 다루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본 연구는 그것에 해당한다.

본 연구에서는 앞의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부산・울산・경남지역에 소재한 22개 4년제 대학도서관[5]의 전자정보자원 검색시스템을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을 이와 같이 한정한 것은 앞의 연구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대부분의 도서관 자료 검색시스템이 이를 개발한 회사별로 공통성이 있고, 또한 이 지역의 대학도서관들이 비교적 다양한 주체들이 개발한 검색시스템을 채용하고 있어 검색시스템의 다양함을 관찰하는데 부족함이 없었기 때문이다.

한편 도서관의 전자정보자원 검색시스템은 주로 목록 단위의 거시적 검색시스템이었으며 전자잡지를 비롯한 웹 DB 등에 포함된 내용 단위의 미시적 검색을 할 수 있도록 구축된 경우는 드물었다. 내용 단위의 미시적 검색은 주로 전자정보자원의 제공처에서 구축한 것을 이용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추가로 국내의 전자정보자원 제공처의 정보검색시스템 5개, 국외 제공처의 정보검색시스템 5개[6]를 분석하였다.

---

4) 도태현, "자동화목록 검색시스템의 현황과 표준화 방안 : 부산・울산・경남지역 대학도서관 목록의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8권 제4호(2007. 12), pp.357-376.

5) 2007년 한국도서관연감의 대학도서관주소록에 등재된 이 지역의 23개 대학도서관을 대상으로 목록검색시스템을 조사하였으나 그 중 1개관은 전자정보자원 검색메뉴를 두지 않고 있어 22개관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韓國圖書館協會, 한국도서관연감. 2007(서울: 韓國圖書館協會, 2007), pp.610-640.

6) KERIS와 KESLI의 해외전자정보 컨소시엄에서 컨소시엄 참여기관 수에서 상위를 차지하는 것들을 중심으로 선택하였다. KERIS 홈페이지, 〈http://ace.riss4u.net/index.jsp〉 [인용 2008. 10. 16]; KESLI홈페이지, 〈http://www.kesli.org/kesliindex.htmlrl〉 [인용 2008. 10. 16].

www.kci.go.kr

Ⅱ. 조사대상 도서관 전자정보자원 검색시스템의 개황

조사대상 22개 도서관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공되는 전자정보자원 검색시스템[7]을 분석하였다. 이들 도서관의 운영시스템 중 5개관은 SO사, 5개관은 XM사, 3개관은 SS사, 2개관은 TV사에서 구축하였으며, 기타 기관이나 개별 도서관이 구축한 시스템은 7개관이었다.[8]

이들 도서관의 전자정보자원 검색시스템은 전체자료 검색에 전자정보자원을 포함하여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경우, 이와는 별도로 독립된 전자정보자원 검색메뉴를 설정하고 있는 경우, 양쪽 모두에 전자정보자원 검색메뉴를 두고 있는 경우가 있었다. 조사대상도서관 22개 모두에서 전자정보자원 검색을 위한 독립된 메뉴를 설정하고 있었으며, 전체자료 검색에서도 전자정보자원 검색메뉴를 따로 구분하였거나 검색 제한자로 전자정보자원 설정하고 있는 도서관은 15개관이었다. 이들 각각의 예시 화면을 보면 〈그림 1, 2〉와 같다.[9]

〈그림 1〉 전체자료 검색에서 전자정보자원 검색화면

7) 경남대학교, 경상대학교, 경성대학교, 고신대학교, 동명대학교, 동서대학교, 동아대학교, 동의대학교, 부경대학교, 부산가톨릭대학교, 부산교육대학교, 부산대학교, 부산외국어대학교, 부산장신대학교, 신라대학교, 영산대학교, 울산대학교, 인제대학교, 진주교육대학교, 진주산업대학교, 창원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등 22개 대학교의 도서관 홈페이지를 2008. 9. 17.부터 10. 6. 사이에 걸쳐 분석함.

8) 韓國圖書館協會, 앞의 책, pp.734-751에서 발췌.

9) 조사대상 도서관 중에서 M대학도서관의 검색화면을 2008.12.10. 캡처한 것임.

www.kci.go.kr

〈그림 2〉 독립된 전자정보자원 검색화면

전체자료 검색메뉴와 독립된 전자정보자원 검색메뉴 각각에서 전자정보자원의 유형을 구분한 상황은 〈표 1〉과 같다.

전체자료 검색에서는 웹 DB와 전자잡지를 구분한 경우는 각각 7개관, 전자도서를 구분한 경우는 6개관이 있었으며 전자정보자원을 통합검색 할 수 있게 한 경우는 3개관이며 이 중에서 1개관은 메타검색메뉴를 두고 있다. 기타 전자정보자원의 범주에 CD, DVD, 멀티미디어, 비도서, 학위논문원문, 네이버검색 등을 포함시킨 경우가 있었다.

〈표 1〉 자료 검색메뉴에서 전자정보자원의 유형 구분

유형 \ 도서관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계
전체자료 검색메뉴	전체검색				0	0	메뉴없음					메뉴없음		0			메뉴없음				메뉴없음		메뉴없음	3
	메타검색				0																			1
	웹 DB			0				0		0	0				0					0		0		7
	전자잡지		0	0					0		0				0	0			0					7
	전자도서	0	0	0	0						0					0								6
독립된 검색메뉴	전체검색		0	0													0					점검중		3
	메타검색		0			0		0						0			0							5
	웹 DB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8
	전자잡지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7
	전자도서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0
운영 SW		SO					XM					TV		SS			기타							

전체자료 검색메뉴의 기타 : CD, DVD, 멀티미디어/비도서, 학위논문원문, 네이버검색.
독립된 검색메뉴의 기타 : e-learning, 한국학DB, 참고DB, 사전, Collection, 국내학회지DB, CD-ROM, 학위논문원문, 교내간행물원문, 멀티미디어, 자체생산디지털자료, open archive.

www.kci.go.kr

독립된 전자정보자원 검색메뉴에서는 조사 당시 시스템 점검중이라고 하여 그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던 한 도서관을 제외하고 21개 도서관 중 웹 DB를 구분한 경우(여기에는 학술 DB라고 구분한 것까지 포함하였다. 이후 같음) 18개관, 전자잡지를 구분한 경우 17개관, 전자도서를 구분한 경우(여기에는 웹 북이라고 구분한 것까지 포함하였으며 이후 같음)는 20개관이었다. 전자정보자원을 통합검색 할 수 있게 한 경우는 3개관, 메타검색메뉴를 둔 곳은 5개관이 있었다. 이러한 현상으로 미루어 볼 때 이미 대부분의 도서관에서는 이와 같은 전자정보자원들이 도서관 정보자원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조사대상 도서관 전체에서 전자도서를 따로 구분하여 다루고 있어 전자정보자원 중에서도 전자도서가 가장 일반화된 형태임을 알 수 있게 한다. 그 외에 전자정보자원의 유형으로 e-learning, 한국학DB, 참고DB, 사전, Collection, 국내학회지DB, CD-ROM, 학위논문원문, 교내간행물원문, 멀티미디어, 자체생산 디지털자료, open archive 등을 구분한 경우가 있었다.

참고로 자료 검색화면 상에 독립된 전자정보자원 검색메뉴는 두고 있지만 실제로 자체 검색시스템을 갖고 있지 않은 도서관이 7개관에 달하였으며 이 경우는 주로 데이터베이스 제공처의 검색시스템을 사용하도록 하거나 KERIS의 통합검색시스템으로 링크한 경우도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논의의 초점이 방만해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도서관이 구축한 자체 검색시스템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또한 검색시스템의 실제 가동 여부나 성능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검색 화면상에 나타나는 메뉴나 항목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Ⅲ. 도서관의 전자정보자원 검색시스템

1. 전체자료 검색메뉴에서 전자정보자원 검색

전체자료 검색메뉴에서 전자정보자원 검색메뉴를 구분하였거나 제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경우의 검색시스템 실태는 다음과 같다.

가. 접근점

전체자료 검색에서 전자정보자원 검색의 접근점 종류는 〈표 2〉와 같다.

전체자료 검색에서 전자정보자원 검색메뉴를 두고 있지 않은 7개관을 제외한 15개관 모두에서 자료명을 접근점으로 채택하였으며 저자와 발행처는 14개관에서, 주제는 13개관에서, ISB(S)N은 12개관에서, 청구기호와 등록번호는 9개관에서, 총서명은 8개관에서, 초록은 6개관에서 각각 접근점으로 채택하였다. 그 외에 분류기호, 제어번호, 목차 등을 접근점으로 채택한 도서관들이 있었다.

www.kci.go.kr

〈표 2〉 전체자료 검색에서 전자정보자원 검색의 접근점

접근점 \ 도서관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계
전체	0	0		0		메뉴 없음	0	0	0	0	메뉴 없음					메뉴 없음		0		메뉴 없음		메뉴 없음	8
자료명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5
저자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4
발행처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4
총서명			0	0	0								0	0	0				0		0		8
ISB(S)N	0	0	0	0	0		0						0	0	0			0	0		0		12
청구기호	0			0	0			0					0	0	0				0		0		9
분류기호	0		0		0																		3
주제		0	0	0	0		0	0	0				0	0	0			0	0		0		13
목차					0																		1
초록				0									0	0	0				0		0		6
제어번호	0	0	0		0																		4
등록번호	0		0	0	0								0	0	0				0		0		9
비고	B	B	C	C	B		B	B	A	B			B	C	B			A	C		C		
운영 SW	SO					XM					TV		SS			기 타							

기타 : 학위논문 전공학과, 여러 형태의 표제, 기사명.
비고 : A-전체검색의 하위메뉴로 설정한 경우, B-제한자로 표시한 경우, C-하위메뉴로도 설정하고 제한자로도 표시한 경우.

이와 같은 양상은 전체자료 검색의 접근점 채택 경향과 유사하다.[10] 이것은 검색시스템을 구축한 주체들이 전자정보자원에 대하여 자료의 유형만을 따로 구분하였지 이들 자료의 특성을 감안하여 접근점의 종류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나. 검색조건

전체자료 검색의 전자정보자원 검색메뉴에서 사용한 검색조건(검색어의 조합방식, 일치방식, 검색유형을 말함. 이후 같음)은 〈표 3〉과 같다.

〈표 3〉 전체자료 검색에서 전자정보자원의 검색조건

검색조건 \ 도서관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계
조합 방식	AND	0	0	0	0	0	메뉴 없음	0	0	0	0	메뉴 없음		0	0		메뉴 없음			0	메뉴 없음	0	메뉴 없음	13
	OR	0	0	0	0	0		0	0	0	0			0	0					0		0		13
	NOT	0	0	0	0	0		0	0	0				0	0					0		0		12
일치 방식	전방일치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4
	완전일치	0	0	0	0	0		0						0	0				0	0		0		11
	키워드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4
검색 유형	상세검색	0	0	0		0										0								5
	간략검색		0	0		0										0								4
	구분없음				0			0	0	0	0			0	0				0	0		0		10
운영 SW		SO					XM					TV		SS			기 타							

기타: 가나다리스트, 주제별리스트, 분류검색, 제공업체별리스트, 학과별리스트, 구문일치.

10) 전체 도서관자료의 통합검색 접근점 종류를 분석한 결과도 이와 유사하였다. 도태현, 앞의 논문, p.364.

www.kci.go.kr

15개관 중 검색어의 조합방식을 사용한 도서관은 13개관이며 2개관은 조합방식을 사용하지 않았다. 조합방식을 사용한 13개관 중 1개관은 AND와 OR만을 사용하고 NOT은 사용하지 않았다. 일치방식으로는 14개관이 전방일치나 키워드 일치방식을 채택했으며 완전일치방식은 11개관에서 채택하였다. 상세검색이나 간략검색을 구분한 도서관은 5개관이었으며 10개관은 구분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양상 역시 전체자료 검색의 경우와 유사하며[11] 그 이유도 접근점의 경우와 같은 것으로 생각된다.

2. 전자정보자원 검색메뉴에서 자료 유형별 검색

독립된 전자정보자원 검색메뉴에서는 전자정보자원 전체를 대상으로 검색 할 수 있게 한 경우와 자료의 유형별로 검색 메뉴를 둔 경우가 있다. 각각의 경우를 분석하였다.

가. 통합검색 및 메타검색

(1) 접근점

통합검색 및 메타검색의 접근점 종류는 〈표 4〉와 같다.

〈표 4〉 통합검색 및 메타검색의 접근점

접근점 \ 도서관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계
전체	통합검색없음			통합검색없음	0	통합검색없음	0	통합검색없음						통합검색없음		0	통합검색없음				점검중	통합검색없음	3
자료명		0	0		0		0						0			0							6
저자		0			0		0						0			0							5
발행처		0	0		0		0						0										5
발행연도																0							1
주제어		0														0							2
ISB(S)N		0	0		0								0			0							5
초록					0								0										2
운영 SW	SO					XM					TV		SS			기 타							

기타: 키워드

전체 전자정보자원의 통합검색메뉴나 메타검색메뉴를 구비한 도서관은 6개관에 불과하였다. 이와 같이 통합검색메뉴가 없는 도서관이 많은 것은 각종 전자정보자원들 간에 공통성이 부족한 것이 원인으로 보이고, 메타검색메뉴가 없는 도서관이 많은 것은 전자정보자원 구입처의 검색시스템으로 연결하여 자관의 검색시스템을 대신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통합검색메뉴나 메타검

11) 위의논문, p.365.

www.kci.go.kr

색메뉴를 두고 있는 6개관 모두는 자료명을, 5개관은 저자 발행처 ISB(S)N 등을 접근점으로 채택하였으며 그 외에 초록, 주제, 발행년, 키워드를 접근점으로 채택한 도서관도 있었다.

(2) 검색조건

통합검색 및 메타검색의 검색조건은 〈표 5〉와 같다.

〈표 5〉 통합검색 및 메타검색의 검색조건

검색조건 \ 도서관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계
조합방식	AND	통합검색없음	0	0	통합검색없음		통합검색없음	0	통합검색없음					0	통합검색없음		0	통합검색없음				점검중	통합검색없음	5
	OR		0	0				0						0			0							5
	NOT		0	0													0							3
일치방식	전방일치		0	0													0							3
	완전일치		0	0													0							3
	키워드		0	0													0							3
검색유형	상세검색		0	0										0			0							4
	간략검색		0	0										0			0							4
	구분없음					0		0																2
운영 SW		SO					XM					TV		SS			기 타							

기타: 가나다리스트, 주제별리스트.

1개관을 제외한 5개관은 검색어의 조합방식을 채택하였으며 이들 중 2개관은 AND와 OR만 채택하고 NOT은 채택하지 않았다. 일치방식의 구분은 3개관에서만 하였으며 나머지는 구분하지 않았다. 상세검색과 간략검색을 구분한 도서관은 4개관이었으며 이를 구분하지 않은 도서관은 2개관이었다.

나. 웹 DB

(1) 접근점

웹 DB 검색메뉴를 둔 곳은 18개관이었다. 그러나 웹 DB 검색메뉴를 둔 도서관에서도 대부분은 해당 도서관이 구독하고 있는 웹 DB의 리스트로 연결만 시켜놓았으며 자관의 검색시스템을 둔 곳은 7개관에 불과하였다. 웹 DB의 리스트로 연결해 둔 경우는 해당 웹 DB의 검색시스템을 통해 정보를 검색할 수 있게 하였다. 도서관 자체의 검색시스템을 갖고 있는 경우에도 대부분 검색결과를 다시 미시적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해당 웹 DB의 사이트로 연결시켜놓은 경우가 많았다. 도서관 검색시스템의 접근점 종류는 〈표 6〉과 같다.

www.kci.go.kr

〈표 6〉 웹 DB 검색의 접근점

접근점 \ 도서관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계
전체	리스트로 연결	전자잡지와 통합		리스트로 연결		검색메뉴 없음	리스트로 연결					0		리스트로 연결			접근점 구분 없음	검색메뉴 없음	리스트로 연결		점검중	리스트로 연결	1
자료명			0		0							0	0			0							5
저자					0							0											2
발행처			0		0											0				0			4
ISB(S)N			0																				1
주제어					0								0							0			3
운영 SW	SO					XM					TV		SS			기 타							

기타: 키워드명, 출처, 제공자, DB명, 설명, 카테고리, 유형.

웹 DB 검색메뉴를 둔 7개관 중 5개관에서는 자료명을, 4개관에서는 발행처를, 3개관에서는 주제를 접근점으로 채택하였으며 저자를 접근점으로 둔 경우는 2개관뿐이었고, 1개관은 접근점의 종류를 구분하지 않았다. 접근점으로 저자를 채택한 시스템이 적게 나타나는 것은 DB 단위의 검색에는 저자가 그다지 중요한 요소가 아니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2) 검색조건

웹 DB 검색의 검색조건은 〈표 7〉과 같다.

〈표 7〉 웹 DB검색의 검색조건

검색조건 \ 도서관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계
조합방식	AND	리스트로 연결	전자잡지와 통합	0	리스트로 연결	0	검색메뉴 없음	리스트로 연결					0	0	리스트로 연결				검색메뉴 없음	리스트로 연결	0	점검중	리스트로 연결	5
	OR			0		0							0	0							0			5
	NOT			0		0								0										3
일치방식	전방일치			0		0											0				0			4
	완전일치			0		0											0							3
	키워드			0		0								0			0				0			5
검색유형	상세검색			0		0																		2
	간략검색			0		0																		2
	구분없음												0	0			0	0			0			5
운영 SW		SO					XM					TV		SS			기 타							

기타: 가나다리스트, 주제별리스트, 분야별리스트, 수록DB리스트.

조합방식을 채택한 도서관은 5개관이었으며 그 중 2개관에서는 AND, OR, NOT 중 NOT을 채택하지 않았다. 일치방식도 5개관에서 구분하였으나 그중 1개관은 키워드만을 채택하였으며 2개관은 완전일치를 채택하지 않았다. 검색유형을 상세검색과 간략검색으로 구분한 곳은 2개관뿐이었으며 나머지는 검색유형을 구분하지 않았다.

www.kci.go.kr

다. 전자잡지

(1) 접근점

전자잡지 검색메뉴를 둔 곳은 17개관이었다. 이들 중 3개관은 전자잡지 제공처의 사이트로 연결만 시켜놓았으며 이 경우는 해당 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검색시스템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자체 검색메뉴를 두고 있는 곳은 14개관이었으며 접근점 종류는 〈표 8〉과 같다.

〈표 8〉 전자잡지의 접근점

접근점 \ 도서관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계
전체						검색메뉴없음	0	웹DB에포함		리스트로연결		0		리스트로 연결			구분없음	0	웹DB에포함		점검중	검색메뉴없음	3
자료명(잡지명)	0	0	0	0	0		0		0		0	0	0			0		0		0			13
저자							0						0			0							3
발행처(제공처)		0	0	0	0		0					0	0			0		0		0			10
주제어				0	0		0						0					0					5
ISB(S)N	0	0	0	0	0				0		0	0	0			0		0					11
운영 SW	SO					XM					TV		SS			기 타							

기타: 기사명, DB명, 권호, PMID, DOI.

1개관에서는 접근점을 전혀 구분하지 않았으며, 그 외 13개관 모두에서 자료명(잡지명)을, 11개관에서는 ISB(S)N을, 10개관에서는 발행처(제공처)를, 5개관에서는 주제를 접근점으로 채택하였고, 저자명은 3개관에서만 접근점으로 채택하였다. 저자명이 접근점으로 채택된 경우가 이렇게 희소한 것은 극히 일부 도서관의 전자잡지 검색시스템에서 기사 단위의 검색을 할 수 있도록 한 경우가 있었으나 대부분 도서관에서는 잡지 단위의 검색만 할 수 있어 저자명 검색은 거의 필요 없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2) 검색조건

전자잡지 검색시스템을 갖고 있는 14개관의 검색조건은 〈표 9〉와 같다.

〈표 9〉 전자잡지의 검색조건

검색조건	도서관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계
조합방식	AND		0	0		0	검색메뉴없음	0	웹DB에포함		리스트로연결		0	0	리스트로연결					웹DB에포함	0	점검중	검색메뉴없음	7
	OR		0	0		0		0					0	0							0			7
	NOT		0	0		0		0						0										5
일치방식	전방일치	0	0	0	0	0		0		0				0			0		0		0			11
	완전일치	0	0	0	0	0		0		0				0			0		0					10
	키워드	0	0	0	0	0		0		0				0			0		0		0			11
검색유형	상세검색		0	0		0				0														4
	간략검색		0	0		0				0														4
	구분없음	0			0			0				0	0	0			0	0	0		0			10
운영 SW		0SO					XM					TV		SS			기 타							

기타: 가나다리스트, 주제별리스트, DB별리스트, 출판사별리스트.

www.kci.go.kr

14개관 중에서 조합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도서관은 7개관이며 그 중 2개관은 AND와 OR만 사용하였으며 NOT은 사용하지 않았다. 일치방식은 3개관을 제외한 11개관에서 구분하였으며 그 중 1개관은 전방일치와 키워드만을 사용하였으며 완전일치를 채택하지 않았다. 그리고 상세검색과 간략검색을 구분한 도서관은 4개관이었으며 이를 구분하지 않은 도서관은 10개관이었다.

라. 전자도서

(1) 접근점

전자정보자원의 유형으로 전자도서를 구분한 곳은 20개관이었다. 그 중에는 전자도서를 전자정보자원의 하위 메뉴로 둔 도서관 외에 전자정보자원과 별도로 독립된 메뉴로 둔 도서관도 있었다. 20개관 중에서 12개관은 자체 검색시스템을 두지 않고 제공처의 검색시스템으로 연결하고 있었다. 자체 검색시스템을 둔 8개관의 접근점은 〈표 10〉과 같다.

〈표 10〉 전자도서의 접근점

접근점 \ 도서관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계
전체	해당사이트로연결			해당사이트로연결		해당사이트로연결	0	해당사이트로연결			0	해당사이트로연결		해당사이트로연결			구분없음	해당사이트로연결			점검중	검색메뉴없음	2
자료명		0	0		0		0				0		0							0			7
저자		0	0		0		0				0		0							0			7
발행처		0	0		0		0				0		0							0			7
발행연도																				0			1
ISB(S)N		0									0												2
주제어		0			0																		2
목차											0												1
운영 SW	SO					XM					TV		SS			기 타							

기타: 입고일순

8개관 중 1개관은 접근점을 구분하지 않았으며 그 외 7개관 모두에서 자료명 저자명 발행처를 접근점으로 채택하였다. 그리고 ISB(S)N과 주제는 각각 2곳, 발행연도 목차는 각각 1곳에서 접근점으로 채택하였다. 이러한 현상도 인쇄매체의 경우와 유사하다. 이는 전자도서가 기존의 단행본을 디지털화하였거나 단행본의 체제를 따라 제작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전자도서가 인쇄자료에 비해 주제를 접근점으로 채택한 경우가 적은 것은 아직은 그 양이 많지 않아 주제 구분의 필요성이 크지 않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발행처가 중요한 검색요소가 된 것은 목록의 자동화 이래 생겨난 일반적 경향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전자도서는 소수의 발행처가 독과점적으로 생산하고 있어 발행처 단위의 검색이나 이용이 중요시되기 때문일 것이다.

www.kci.go.kr

(2) 검색조건

전자도서의 검색조건은 〈표 11〉과 같다.

〈표 11〉 전자도서의 검색조건

검색조건 \ 도서관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계
조합방식	AND	해당사이트로연결	0		해당사이트로연결	0	해당사이트로연결	0	해당사이트로연결				해당사이트로연결		해당사이트로연결				해당사이트로연결		0	점검중	검색메뉴없음	4
	OR		0			0		0													0			4
	NOT		0			0																		2
일치방식	전방일치		0			0						0												3
	완전일치		0			0																		2
	키워드		0			0						0									0			4
검색유형	상세검색		0			0																		2
	간략검색		0			0																		2
	구분없음			0				0				0		0				0			0			6
운영 SW		SO					XM					TV		SS			기 타							

기타: 가나다리스트, 주제별리스트.

8개관 중에서 조합방식을 사용한 도서관은 4개관이며 나머지 4개관은 조합방식을 사용하지 않았다. 조합방식을 사용한 도서관 중에서도 2개관에서는 AND와 OR만 사용하였으며 NOT은 사용하지 않았다. 일치방식으로는 3개관에서 전방일치, 2개관에서 완전일치, 4개관에서는 키워드일치를 사용하였다. 상세검색과 간략검색을 구분한 도서관은 2개관뿐이었으며 나머지 6개관은 검색유형을 구분하지 않았다.

전자도서의 경우 이와 같이 조합방식이나, 일치방식, 검색유형을 자세하게 구분하지 않은 이유 역시 아직까지 전자도서의 종수가 많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 전자도서 제공처에서 자체적으로 검색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는 것도 그 이유가 될 것이다. 그러나 추후 전자도서의 양적 증대를 고려한다면 검색조건도 보다 자세하게 정비해둘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Ⅳ. 제공처의 전자정보자원 검색시스템

전자정보자원의 보다 미시적 검색을 가능하도록 한 제공처의 검색시스템들 중 국내 5개[12], 국외

12) KRpia 홈페이지, 〈http://www.krpia.co.kr/ [인용 2008. 10. 16]; DBpia 홈페이지, 〈http://www.dbpia.co.kr/index_b2b.asp〉 [인용 2008. 10. 13]; 한국학술정보홈페이지, 〈http://kiss.kstudy.com/?c_code=42150714012571851 10&code=0134〉 [인용 2008. 10. 15]; 학지사 홈페이지, 〈http://newnonmun.com/webdb/〉 [인용2008. 10. 15]; 학술교육원홈페이지, 〈http://www.earticle.net/Search/Power/〉 [인용 2008. 12. 10]의 검색시스템을 분석.

www.kci.go.kr

5개[13]를 선택하여 분석하여 보았다.

1. 제공처별 검색시스템의 접근점

가. 국내 제공처 검색시스템의 접근점

국내 제공처 검색시스템[14]의 접근점 종류는 〈표 12〉와 같다.

〈표 12〉 국내 제공처 검색시스템의 접근점

제공처 / 접근점	국 내					계
	가	나	다	라	마	
전체	0	0	0			3
간행물(제품)명	0	0	0	0	0	5
제목(기사)명		0	0	0	0	4
저자	0	0	0	0	0	5
발행처	0	0	0	0	0	5
발행연도				0	0	2
ISB(S)N	0	0				2
목차	0	0	0			3
초록		0	0		0	3

기타: 제품소개, 키워드, 설문항, 조사제목.

5개 기관 모두에서 간행물명, 저자, 발행처를 접근점으로 채택하였으며, 기사명은 '가'를 제외한 4개 기관에서 채택하였다. 기관 '가'에서 기사명을 접근점으로 채택하지 않은 것은 여기서 제공하는 자료가 주로 전자도서여서 기사 단위의 검색은 불필요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 외에 목차와 초록은 3개 기관에서, ISBN과 발행연도는 2개 기관에서 각각 접근점으로 채택하였다. 전자정보자원의 검색에서도 역시 전통적으로 도서관의 목록이나 색인에서 중요시되었던 접근점이 주로 사용되었으며, 특히 대부분의 기관에서 기사명을 접근점으로 채택하고 있는 것은 전자잡지나 웹 DB의 내용 단위 검색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

13) ProQuest Home page, 〈http://proquest.umi.com/login〉 [cited 2008. 10. 15];
CSA Illumina Home page, 〈http://csaweb106v.csa.com/ids70/〉 [cited 2008. 10. 16];
Science Direct Home page, 〈http://www.sciencedirect.com/〉 [cited 2008. 10. 16];
Wiley Inter Science Home page, 〈http://www3.interscience.wiley.com/cgi-bin/home?CRETRY=1&SRETRY=0〉 [cited 2008. 10. 15]; Emerald Home page, 〈http://info.emeraldinsight.com/products/journals/index.htm?PHPSESSID=427ekecppq2k4sjnjr7fk5bsr3&〉 [cited 2008. 10. 15]의 검색시스템을 분석.

14) 제공처 '가'와 '라'는 정보자원의 유형을 구분하지 않았으며, '나'는 전체, 학술잡지, 학술대회자료, 학술연구보고서, 전문잡지, 국가지식(학술기사), 국가지식(학술정보)으로 구분하였고, '다'는 학술지, 단행본, 신문아카이브로, '마'는 자료의 유형은 구분하지 않았으나 주로 학회 및 학술단체의 저널을 다루었다.

www.kci.go.kr

나. 국외 제공처 검색시스템의 접근점

국외 제공처의 검색시스템[15]의 접근점 종류는 〈표 13〉과 같다.

〈표 13〉 국외 제공처 검색시스템의 접근점

제공처 / 접근점	국 외					계
	A	B	C	D	E	
All fields		0		0	0	3
Jnl.(Publication) title	0		0	0	0	4
Article(Document) title	0	0	0	0	0	5
Author	0	0	0	0	0	5
Publisher(Product name)	0				0	2
Issue					0	1
ISB(S)N			0	0	0	3
CODEN		0				1
Call No		0				1
Classification code	0					1
Subject	0	0				2
Descriptor		0				1
Abstract	0	0	0	0	0	5
Full text	0		0	0		3
Reference			0	0		2
Key words		0	0	0	0	4
Citation	0					1
Affiliation		0	0	0		3
Location	0	0				2
Caption	0	0				2

기타: Document feature, Document ID, Document language, Document type, NAICS code, Person, Section, Accession no., Acronym, Additional contact, Additional information, Address, Age, Agency, Article accession no., Article geographic terms, Article taxonomic terms, Associate event, Availability, Biography, Brows volume, Category. Finding agency, Article Doi, Country, Page, Reference no., Volume.

표에서 볼 수 있듯이 국외 제공처의 접근점 종류는 국내 제공처에 비해 번잡할 정도로 다양하며 그 중 몇몇은 용어의 의미조차 파악하기 쉽지 않다. 5개 기관 모두에서 기사명 저자명 초록을 접근점으로 삼았으며 잡지명과 키워드는 4개 기관에서, ISB(S)N과 전문(全文), 협력기관(Affiliation)은 3개 기관에서 각각 접근점으로 삼았고, 그 외에도 〈표 13〉이나 표 아래의 기타 부분에서 볼 수 있듯이 다양한 요소들을 접근점으로 삼았다. 그러나 이들 기관에서도 전통적으로 도

15) 'A'는 multiple databases, Business-ABI/INFORM Trade & Industry, Education-Education journals, Education-ERIC, Interdisciplinary-Academic Research Library, Interdisciplinary-Dissertation & Thesis, News-ProQuest Newspaper, News-U.S. National Newspaper Abstracts(3)로, 'B'는 DB 별로, 'C'는 journals과 All Books로, 'D'는 All, Journals, Reference works, Onlinebooks, Databases로 구분하였으며, 'E'는 자료의 유형을 구분하지 않았다.

www.kci.go.kr

서관 목록과 색인 검색시스템에서 중요시되었던 잡지명, 기사명, 저자명 등은 공통적으로 중요한 접근점으로 취급하였으며, 그 외에 전자잡지의 특성상 초록, 전문, 표준번호 등을 접근점으로 채택한 기관들도 많다. 다만 발행처를 검색요소로 삼은 기관이 그다지 많지 않은 것은 국내 제공처의 검색시스템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2. 제공처별 검색시스템의 검색조건

가.) 국내 제공처 검색시스템의 검색조건

국내 제공처의 검색조건은 〈표 14〉와 같다.

〈표 14〉 국내 제공처 검색시스템의 검색조건

검색조건 \ 제공처		국 내					계
		가	나	다	라	마	
조합방식	AND	0	0	0	0		4
	OR	0	0	0	0		4
	NOT	0	0				2
일치방식	전방일치	구 분 없 음					0
	완전일치						0
	키워드					0	1
검색유형	상세검색	0	0	0	0	0	5
	간략검색	0	0	0	0	0	5

기타: 가- 불리안검색, 나-불리안검색, 다-학술지, 단행본, 신문아카이브로 자료의 유형을 구분하고 검색시스템을 약간씩 달리함, 라 -간행물리스트, 주제별 검색, 마-주제별검색, 통계항목검색, 테이블검색, 색인검색.

검색어의 조합방식을 전혀 채택하지 않은 마의 경우를 제외하고 4개 기관 모두에서 조합방식을 채택하였으며 그중 2개 기관에서는 AND와 OR만 채택하고 NOT은 채택하지 않았다. 일치방식은 5개 기관 모두에서 구분하지 않았으며 특별히 표기하지는 않았으나 이 경우 주로 키워드 일치방식을 채택한 것으로 보인다. 검색의 유형은 5개 기관 모두 상세검색과 간략검색으로 구분하였다.

이들 제공처가 전통적 목록보다 비교적 자세한 검색조건들을 제공하고 있는 것은 전자잡지의 기사를 효과적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다만 대부분의 제공처가 일치방식을 구분하지 않았는데 일치방식 역시 검색의 정조(精粗)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장치일 것으로 생각된다.

나. 국외 제공처 검색시스템의 검색조건

국외 제공처의 검색조건은 〈표 15〉와 같다.

www.kci.go.kr

〈표 15〉 국외 제공처 검색시스템의 검색조건

검색조건 \ 제공처		국외					계
		A	B	C	D	E	
조합방식	AND	0	0	0	0	0	5
	OR	0	0	0	0	0	5
	NOT	0	0	0	0	0	5
일치방식	전방일치	구분없음	0	구분없음			1
	완전일치		0			0	2
	키워드		0				1
검색유형	상세검색	0	0	0	0	0	5
	간략검색	0	0	0	0	0	5

기타: 조합방식 : Within, PRE/1. Expert search(검색어와 연산자를 직접 입력함).

조합방식은 5개 기관 모두에서 채택하였으며 종류도 AND, OR, NOT을 모두 사용하였다. 그 외에 Within, PRE/1. Expert search(검색어와 연산자를 직접 입력하여 검색함) 등도 사용하였다. 일치방식은 'B'에서만 사용하였으며 나머지는 구분하지 않았다. 검색유형은 5개 기관 모두에서 상세검색과 간략검색으로 구분하였다. 검색조건을 이와 같이 자세히 구분한 것은 내용 단위의 미시적 검색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함인 것으로 생각되며, 검색의 정조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일치방식의 구분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Ⅴ. 요약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조사대상 도서관의 전자정보자원 검색시스템 22개와 전자정보자원 제공처의 검색시스템 10개를 대상으로 도서관을 통하여 제공되는 전자정보자원의 검색시스템을 분석하였다.

논지를 벗어난 감이 있기는 하나 웹상에서 개별 도서관의 전자정보자원에 접근하는데 다양한 제한을 가하고 있어 검색시스템을 조사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전자정보자원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16]나 라이센스 계약에 의한 이용자 범위의 제한에 따른 결과이다.

모든 도서관에서 접근이 허용된 특정 이용자군 외에는 전자정보자원의 내용정보에는 접근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일부 도서관에서는 내용정보에 접근하는 것 뿐 아니라 도서관 자체의 서지정보

16) "기술적보호조치"라 함은 프로그램에 관한 식별번호·고유번호 입력, 암호화 기타 이 법에 의한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핵심기술 또는 장치 등을 통하여 프로그램著作權을 보호하는 조치를 말한다.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第2條 9항.

www.kci.go.kr

검색시스템에까지 ID와 Password 인증 방식 등을 통하여 일반의 접근을 막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적절한 정보의 선별을 위해 서지정보를 탐색하는 것은 내용정보의 이용도를 높일 수 있게 한다. 따라서 도서관뿐만 아니라 전자정보자원 제공처에서도 내용정보를 제외한 서지정보 검색시스템까지는 제한 없이 일반에게 개방하는 것이 정보자원의 이용률을 높일 뿐 아니라 정보의 접근권을 보상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전자정보자원 검색시스템 분석 결과의 요약과 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료검색 시스템에서 전자정보자원 검색메뉴가 불필요하게 중복되어 있다. 조사대상 22개 도서관 모두에서 독립된 전자정보자원 검색메뉴를 두고 그 하위 메뉴로 전자정보자원의 통합검색을 하거나 자료의 유형별로 검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는데 이와는 별도로 도서관 전체자료 검색의 하위 메뉴에서도 전자정보자원 검색메뉴를 두고 있거나, 전자정보자원의 유형별로 구분 혹은 제한하여 검색할 수 있도록 한 도서관들이 많다. 이러한 중복은 화면이나 시스템 공간의 낭비를 초래할 뿐 아니라 이용자를 혼란하게 할 수도 있다. 따라서 전체검색메뉴에서는 전자정보자원 전체의 목록을 통합검색 할 수 있게 하고 각 유형별 검색은 전자정보자원 검색메뉴에서 구분하여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도서관마다 전자정보자원의 유형구분이 일정하지 못하다. 일반적으로 웹 DB, 전자잡지(e-journal), 전자도서(e-book, web book) 등으로 나누었으나, 그 외에 전자도서를 전자정보자원으로부터 독립된 메뉴로 둔 경우, 그리고 메타검색, e-learning, 한국학 DB, 참고 DB, 국내학회지 DB, CD-ROM 등으로 다양하게 구분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개별 전자정보자원 제공처가 제공하는 전자정보자원의 종류가 제각각이고 때로는 여러 유형의 자료를 하나의 DB에 묶어 제공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일반적으로 도서관의 전자정보자원은 개별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디스크나 테이프, 파일 단위의 자료나 웹을 통하여 접근권을 확보한 웹 DB 등이다. 이러한 전자정보자원들은 기존의 도서관 자료에 비해 매체나 정보 전달방식이 바뀐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전자정보자원을 매체의 종류나 접근방식에 따라 구분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오히려 인쇄매체와 마찬가지로 여기에 수록된 정보자원의 속성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전자정보자원을 수록된 정보의 속성에 따라 구분하면 그것이 도서관에 소장된 것이든 웹을 통해 접근할 수 있는 것이든 단행본적 성격을 띤 것은 전자도서로, 그 중에서도 참고자료의 속성을 띤 것은 웹 DB로, 계속간행물의 속성을 띤 것은 전자잡지의 범주에 넣어 구분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전자정보자원의 유형구분이 다양하고 복잡한 것은 개별 도서관이 전자정보자원에 대해 직접 목록이나 색인 작업을 하지 않고 대부분 해당 도서관이 구독 계약한 데이터베이스로 연결만 한 것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즉 도서관이 구입한 DB의 유형에 따라 적절하게 검색메뉴를 구분한 때문이다. 따라서 전자정보자원에 대해 개별 도서관에서도 최소한 책 단위나 잡지 단위

www.kci.go.kr

의 목록은 반드시 자체적으로 작성, 제공하여야 한다. 그 외에 잡지의 기사나 내용 단위의 미시적 정보검색은 제공처의 검색시스템을 활용하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넷째, 전자정보자원의 접근점 구분이 적절하지 못하다. 도서관의 전체자료 검색시스템의 전자정보자원 검색에서는 일반자료의 목록 검색시스템과 공통성을 보인다. 대부분 자료명, 저자명, 발행처, ISB(S)N, 주제 등을 접근점으로 삼았으며 그 외에 청구기호, 분류기호, 제어번호, 등록번호 등을 접근점으로 채택한 경우도 있었다. 독립된 전자정보자원 검색메뉴에서도 대부분 자료명, 저자, 발행처, ISB(S)N을 접근점으로 채택하였으며, 그 외에도 제공자, DB명, 설명, 카테고리 등의 접근점을 채택한 경우도 있었다. 검색시스템은 이용자용 뿐 아니라 사무용으로도 사용되어야 하므로 이에 대비한 다양한 접근점이 필요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필요에 따른 접근점들은 수서나 정리업무 등에서 극히 제한적으로만 사용될 것이므로 어느 한 곳에만 설정해 두면 될 것이다.

외국의 사례이기는 하지만 곽철완이 노티스 시스템(Univ. of Minnesota)과 다이닉스 시스템(Univ. of Montana)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온라인목록 이용자들이 선택하는 접근점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온라인목록의 탐색을 위해 이용자들이 선택한 접근점의 빈도가 주제 34.64%, 서명 30.00%, 저자 16.43 % 키워드 11.43%, 기타 7.89%의 순으로 나타났다.[17] 다른 한편 필자의 지난번 연구를 위해 실시했던 설문조사에서 보았듯이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온라인목록 이용에서 접근점의 이용 빈도 순위가 자료명, 저자, 주제 등에 집중되어 있었다.[18]

이들 결과에 따르면 목록을 비롯한 정보검색 도구들이 전산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들은 여전히 접근점으로 자료명, 저자명, 주제를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청구기호, 제어번호, 등록번호, 혹은 ISB(S)N같은 것들은 전체자료 검색메뉴에만 두어 사무용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자료의 유형별 검색에서는 자료명, 저자명, 발행처, 주제 정도의 접근점만 둠으로써 검색시스템을 간결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이 경우에도 자료의 유형별로는 각각의 특성을 고려하여 접근점의 종류를 취사선택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전자잡지와 같은 경우에는 기사 단위의 검색이 아닌 한 저자명이 접근점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기 때문에 저자명을 빼고, 기사 단위의 검색에서는 기사명과 기사의 저자명을 접근점에 포함시켜야 한다.

전자정보자원 제공처의 검색시스템은 국내의 경우 제공처에 따라 다소간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간행물명, 기사명, 저자명, 발행처를 접근점으로 채택하였으며 그 외에 발행연도, ISB(S)N, 목차, 초록, 키워드 등의 다양한 접근점을 제시하고 있다. 이 경우에도 자료에 대한 사무 처리에 필요한

17) 곽철완, "온라인목록의 탐색유형 : 관련된 변수와 사용된 서지사항을 중심으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30권 제2호(1996. 6.), p.97.

18) 온라인목록 이용 행태에 대한 로그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쉽지 않아 한 대학도서관의 이용자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2007. 10. 23)를 한 바 있으며, 여기에서 온라인목록을 이용할 때 자료명, 저자명, 발행처, 발행연도, 총서명, 표준번호(ISBN, ISSN), 주제어, 분류기호, 청구기호, 등록번호, 기타 중 가장 자주 사용하는 것을 5가지 내로 선택하도록 한 결과임.

www.kci.go.kr

것들은 도서관 전체자료 검색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여기에서는 이용자들이 빈번하게 사용하는 요소들 예를 들면 잡지명, 기사명, 저자명, 주제, 목차, 초록 정도를 대상으로 검색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국외 제공처 검색시스템의 경우는 국내의 경우에 비해 접근점의 종류가 번잡할 정도로 많고 다양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중복되거나 의미가 불분명한 경우까지 있다. 이 경우에도 사무적인 필요에 따른 것들은 전체검색을 위한 목록에서 처리하고 여기서는 이용자의 정보 검색에 긴요한 요소들만 열거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도서관 시스템의 경우 전자정보자원 검색조건은 미비한 부분이 많았다. 자체적인 전자정보자원 검색시스템이 없는 도서관이 많았으며 검색시스템을 구비한 도서관의 경우에도 정보검색 효율을 높이기 위한 검색어 조합방식이나 색인어와 검색어의 일치방식 구분을 채택하지 않은 도서관이 많았다. 도서관의 자료검색이 수작업 방식으로부터 전산화되면서 가져온 획기적 변화는 무엇보다 목록이나 색인에 다양한 검색기법을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전산화의 장점을 최대화하는 것은 필요할 뿐 아니라 충분히 권장되어야 한다. 검색 유형은 상세검색과 간략검색을 구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이는 상세검색의 메뉴만으로도 간략검색이 가능하므로 구태여 이를 구분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전자정보자원 제공처의 검색시스템은 국내외를 불문하고 대부분 검색어의 조합방식을 채택하고 있었으며, 검색유형은 상세검색과 간략검색을 구분하고 있다. 이는 이들 검색시스템들이 주로 자료내용 단위의 미시적 검색을 위한 것이어서 검색조건을 정밀하게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다만 약속이나 한 듯이 국내외를 불문하고 대부분 일치방식의 구분은 하지 않고 있다. 정보검색 결과의 정확도와 양적 조절을 위해 이러한 일치방식의 구분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Ⅵ. 결 론

도서관과 전자정보자원 제공처의 전자정보자원 목록 및 색인 검색시스템을 분석하여 보았다. 이미 전자정보자원이 도서관의 불가피한 정보자원으로 자리매김을 시작하였지만 이들 자원에 대한 도서관의 정보조직은 여전히 미흡한 상태이며 이들 자원의 검색은 많은 부분 제공처의 검색시스템에 의존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그렇지 않아도 전자정보자원의 생산과 유통의 확대가 도서관의 공동화, 게이트웨이로의 전락을 우려하게 만드는 시점이다. 이러한 환경 변화에 도서관이 적절히 대응하고 그 역할을 확고히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도서관이 일차적으로 이들 정보자원의 서지조직업무에 보다 힘을 쏟아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들 자원의 검색시스템들이 보여주는 접근점이나 검색조건의 난맥상과 통일성의 결여는 이용

www.kci.go.kr

자로 하여금 전자정보자원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거나 장애 요인이 될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전자정보자원 관리에 있어 도서관의 주도적 권한 행사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이는 전자정보자원의 서지조직과 검색시스템을 만드는 데 범도서관 차원의 적절한 준거가 마련될 필요가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전자정보자원 검색시스템의 접근점이나 검색조건의 준거는 비단 도서관의 검색시스템 뿐 아니라 전자정보자원 제공처의 검색시스템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은 각주로 대신함〉

www.kci.go.kr

www.kci.go.kr